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1월(제89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매지론, 오이타현 홍보를 위해 APU에 등장!

APU 글로벌 패밀리 데이 오이타현



지난달 16일,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APU) 동문회가 ‘글로벌 패밀리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APU 동문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2014년 10주년 행사 이후 두 번째 개최), 65개 국가 및 지역 출신 졸업생, 재학생 약 640명과 더불어 오이타현도 참가하여 오이타현내 취업·이직, 귀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 마스코트 캐릭터 ‘매지론’도 함께해 오이타현 홍보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여러분이 현내 취업·이직·귀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이타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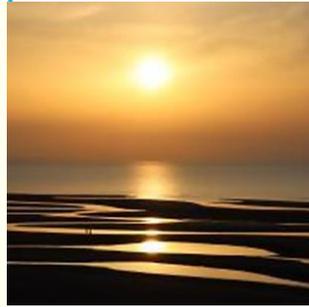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축구팀 오이타 트리니타, 가타노사카 감독 취임 발표
- 몽골 방문단, 각서 체결 3개월 만에 고코노에 시찰 추진
- 우스키시, 식문화 체험형 관광 투어 실시...상품화 목표
- 오이타현, ‘장애인이 활약할 수 있는 현 만들기’ 추진
- 구니사키 고교, 시치토이(사초과 식물)로 금줄 만들어
- 올해 현 내 특수사기 피해액 2억 9천만 엔 넘어서
- 해외 인플루언서, 로쿠고 만잔 문화·후키지 명상 체험
- 전국 체력 테스트서 중2 남학생이 첫 1위 기록
- 벳푸시, ‘탕치 효과’ 가시화 위해 입욕 후 신체 변화 측정
- 현산 건조 표고버섯 생산량 감소...역대 최저치 예상
- 38년간 장애인 수영 가르친 후지모토 씨, 문부성 표창 수상

뉘엿뉘엿하는 노을빛 속에서, 쇼와의 향수를-

분고타카다시 소식 분고타카다시

마타마 해안 유우히 테라스 真玉海岸 恋叶 ゆうひテラス



‘일본 석양 100선’에 선정된 분고타카다시 우스노지구의 ‘마타마 해안’은 썬물 때와 일몰이 겹치면 갯벌에 비친 태양이 줄무늬 모양을 만들어 내며 환상적인 광경을 자아냅니다. 이번에 새로이 오픈한 ‘마타마 해안 유우히 테라스’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전망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으니 마음껏 바다 풍경을 즐겨 보세요.

쇼와노 마치 昭和三〇の町



‘쇼와노 마치’는 쇼와 30년(1955년)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현재에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점가입니다. 상점가에 있는 가게에서는 특색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이를 구매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1957년식 보닛 버스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거나 가이드의 재미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1월(제89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가장 높은 자연 속에서 벳푸의 경관을 즐긴다

벳푸 로프웨이&쓰루미다케 산 벳푸시

2년 전 기지마 고원에 취재하러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산길을 지나던 중 벳푸 로프웨이 버스 정류장을 발견하고 '이런 산 중턱에 케이블카가 있어?'라며 놀랐던 적이 있다. 이미 충분히 높은 것 같은데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더 오르면 얼마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던 중, 겨울에는 눈이 내려 새하얀 풍경이 펼쳐지고 12월 초~3월 중순에 기상 조건이 갖춰질 경우 드물게 상고대까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설경을 취재하기로 결심했다. 2월이 되면 따뜻해질 것이라 예상해서 돌려 1월 중순에 다녀왔는데 취재 날을 잘못 정한 탓에(최고 기온이 15도였던 포근한 날이었다^^) 상고대는커녕 눈을 볼 수도 없었지만, 맑고 새파란 하늘과 멋진 전망 그리고 칠복신 순례 등 다양한 요소 덕분에 즐겁게 자연을 즐길 수 있었던 벳푸 로프웨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1962년 12월에 개통하여 올해로 61주년을 맞은 벳푸 로프웨이는 쓰루미다케 산에 있는 '벳푸고겐 역(해발 503m)'과 '쓰루미산조 역(해발 약 1,300m)'을 오가는 교통수단으로 두 대의 케이블카(유후 호·파란색/쓰루미 호·분홍색)로 운행되고 있다. 케이블카 탑승 정원은 각 101명으로 규슈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쓰루미다케 산 곳곳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벳푸, 유후다케 산, 구주 연산, 주고쿠, 시코쿠는 물론 사가노세키 반도~구니사키 반도를 잇는 국가 지정 일본 풍경 도로 '벳푸만 연안·구니사키 반도 바닷길(150km)'를 탁 트인 산 위에서 볼 수 있어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한, 쓰루미산조 역에서 15분(75m) 정도 걸어 올라가면 쓰루미다케 '산 정상'에 갈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도 있다.

벳푸고겐 역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케이블카를 타고 약 10분 만에 800m를 올라 쓰루미산조 역에 도착하자,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과 시선이 맞닿은 구름에 높은 곳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다. 날씨가 따뜻해 역시나 눈은 전혀 찾아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1월(제89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볼 수 없었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산 곳곳에 모셔져 있는 ‘칠복신(일본의 행운의 신 7명)’을 찾으며 산 정상을 향하기로 했다. 해발 1,300m의 기온은 -1도였기에 너무나도 추웠으나, 전망대에서 벳푸만의 경치와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을 바라보니 걱정이 다 날아가는 듯 가슴이 뻥 뚫려 후련했다. 그렇게 일곱 신을 찾고 천천히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쓰루미다케 산의 매력을 흠뻑 느낀 덕분에 하산하는 길에 다른 계절에도 이곳을 찾아 풍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독자분이라면 나처럼 만족도가 높을 테니 꼭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상고대를 보지 못해 슬퍼하던 나에게 직원이 이야기해 준 쓰루미다케 산의 **상고대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온 -5도 이하(※-10도 반드시 발생)
- ② 안개 낀 날 ③ 바람이 강한 날
- ④ 1월에 비해 2월이 가능성 높음 ❄️❄️

위와 같은 기상 조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상고대가 피는 날에는 경치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벳푸 로프웨이 別府ロープウェイ

- 주소: 別府市大字南立石字寒原10-7 (〒874-0000)
- 문의 전화: 0977-22-2278(일본어)
- 운영 시간:
 - 하절기(3/15~11/14) 9:00~17:30
 - 동절기(11/15~3/14) 9:00~17:00
- 이용 요금(왕복):
 - 성인 1800엔 / 소인 90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1월(제89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34화

노지, 처음으로 일본에 가다! 1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애독자 K의 요청으로
그리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노지in오이타>에서
보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이 알려주세요!

역사와 관련된 곳을 문화탐방하거나
시립 중학교에 방문해 교류를 하는 등
유익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초5 때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는
한일 혼혈 친척 동생과의 만남을 계기로
꾸준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 노지 in 오이타 6 ~ 9화 참조!
(2021.7 ~ 9월호 게재)



중학교 시절의 나는 정말 지독한 오타쿠였어서
어린 마음에 빨리 자유 시간이 되어
츠x야에 가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난다(...)



* 노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모집한
한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일본에 가게 되었다.



아무튼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로 향하는
페리에서 강풍에 안경이 날아가는 등
처음부터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계속



당시 나는 경주에 살고 있었기에
자매 도시인 '나라'를 위주로 4박 5일 동안
오사카와 교토에 간다고 안내를 받았고



이
일본 가기도 전에
안경을 잃어버리는
무당탕탕 첫 일본
방문 이야기 시작!

2010.07.18 13:42